2022 BIBLE ON 365-312

1108(화) 사도행전 9-12장 성령의 확장

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(8:1).
그 핍박의 중심에 <사울>이 있었습니다(8:3).

유대인들은 여전히 <포로기>라고 느꼈습니다.
왕 없이 각 제국의 지배를 받은 것이 오래입니다.
그들은 회복을 염원하며 율법 준수에 집중했고(신30장)
이방인과 상종하거나 신앙에 타협하는 일들(10:28,신7:1-11),
순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.

사울은 이런 하나님 사랑/충성이 남달랐습니다(갈1:14).
한분 하나님을 버리고 <예수> 믿는 것은 배교라 여겼고,
스데반 같은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(8:1).
그는 공동체의 순전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
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떠납니다(9:1-5).

사울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.
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분, 부활하신 그리스도!
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로 조명되었습니다(고후1:20).
새롭게 눈 뜨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,
하나님을 막아 선 죄인 중 괴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.
(9:18, 롬1:3-4, 2:17-20, 딤전1:15).

사울은 하나님과의 독대로 들어갑니다.
13여년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,
율법/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성취되는지,
성령께 복종하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.
이 시간이 다 지났을 때, 사울은 유대인/이방인,
모두를 아우를 사역의 적임자로 발탁됩니다.
(갈1:17-18,2:1, 고후10:5, 행9:15,30/ 11:25)

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?
❶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?
❷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인생에 변화는 무엇입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사도행전 9-12장